



즉시 배포용: 2020년 10월 7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롱아일랜드 맥아더 공항 내 새로운 840만 달러의 복합형 지상 운송 시설의 착공 발표

교통 인프라에 대한 주정부 투자는 롱아일랜드를 새로운 사업체에 더욱 매력적으로 만들고 개발 및 직업 성장을 촉진해

전국 최상의 작은 공항 중 하나로 평가되는 롱아일랜드 맥아더 공항은 더 큰 규모의 뉴욕 메트로폴리탄 공항을 대신해 편리한 여행을 제공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서퍽 카운티 아이슬립에 있는 롱아일랜드 맥아더 공항(MacArthur Airport) 내 840만 달러 규모의 새로운 지상 교통 시설의 착공을 발표했습니다. 공항의 지속적인 현대화에 필수적인 통근 중심 시설은 뉴욕주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의 80만 달러의 보조금과 65만 달러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 보조금으로 지원됩니다. 공항으로의 여행자 접근을 개선할 수 있는 허브는 롱아일랜드 지역경제개발위원회(Long Island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Council, LIREDC)의 전략적 계획에서 지역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투자로 확인되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은 연방 정부의 지원의 오랜 부족에 직면하여 인프라를 계속 재건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은 주 공항을 21세기로 탈바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롱아일랜드 맥아더 공항에 있는 이 새로운 윈스톱 시설은 뉴욕시 및 롱아일랜드 지역의 사업체 및 방문객에게 개선되고 간소화된 여행 경험을 제공할 것입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맥아더 공항의 새로운 지상 운송 시설 착공은 롱아일랜드로의 새로운 입구를 나타냅니다. 지역 공항을 현대화하는 것은 독특하고 다양한 뉴욕주 지역의 사업체와 관광을 강화하는 데 매우 중요하며, 팬데믹 후 미래를 위해 그 어느 때보다 더 낮게 회복하는 또 다른 사례입니다."

주 교통부 커미셔너 **Marie Therese Dominguez**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미국 전역의 공항을 재건하고 현대화하기 위해 전례 없는 투자를 해왔으며, 이는 뉴욕의 모든 지역에서 경제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관문입니다. 롱아일랜드 맥아더 공항의 최신 공항 현대화 프로젝트는 자동차 렌트, 택시 및 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통합형 지상 복합 교통 시설을 구축하여 여행객의 공항 경험을 개선할 것입니다."

엠펙라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의 Eric Gertler 커미셔너 대행, 사장 겸 최고경영자 임명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로운 롱아일랜드 맥아더 공항 교통 허브는 우리 주 공항에 대한 최신 통근 중심의 개선뿐 아니라, **Cuomo** 주지사의 지역 경제 개발에 대한 지속적인 헌신입니다. 교통수단은 경제 성장의 핵심 동인이며, 이러한 시설을 업그레이드하고 현대화하는 투자는 장기적인 사업체 개발을 촉진하고 롱아일랜드와 주 전역으로의 방문객을 맞이합니다."

맥아더 공항은 기존 건물을 원스톱 교통 시설로 개조하여 공항을 오가는 모든 운송 수단을 수용할 것입니다. 이 새로운 12,000제곱피트의 시설은 모든 렌터카 시설의 준비 및 반환 부지를 하나의 중앙 구역에 통합하고 렌터카 카운터를 메인 터미널의 수하물 찾는 곳에서 이전합니다. 현재 수하물 찾는 곳에 있는 공항의 택시 승차장은 새로운 교통 시설로 이동되며, 기존 서퍽 카운티 버스 정류장은 메인 터미널 도로의 외부 차선에서 이 새 시설의 안전한 위치로 이동됩니다. 렌터카 준비 장소 및 카운터, 택시 밴더, 서퍽 카운티 버스 정류장 및 롱아일랜드 철도(Long Island Rail Road) 서퍽 정류장은 이제 공항 메인 터미널 건물 입구와 출구의 도보 거리 내에 편리하게 위치해 있습니다. 완공된 시설에는 두 개의 진입 지점을 연결하는 지붕이 있는 통로가 포함됩니다. 여행자는 또한 차량 운송 서비스를 통해 배달되었을 수 있는 자신의 차량을 하차하거나 픽업할 수 있으며, 이는 플로리다로 차량을 장거리 배송합니다.

Monica R. Martinez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의 롱아일랜드, 특히 서퍽 카운티에 대한 헌신은 확고합니다. 지금과 같은 힘든 시기에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롱아일랜드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관광을 확장함으로써 경제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맥아더 공항은 극대화할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오늘의 발표는 서퍽 주민뿐만 아니라 전체 롱아일랜드 지역에 대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단계입니다."

서퍽 카운티 행정책임자 **Steve Bellone**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맥아더 공항은 서퍽 카운티의 중심에 위치에 있으며 우리 지역이 가진 것을 발견하려는 모든 대상을 환영하는 관문 역할을 합니다. 이 공항을 현대화하고 최첨단 대중교통 허브로 변환하는 것은 새로운 사업체와 방문객을 롱아일랜드로 끌어들이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경제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현지 사업체를 지원하며 지역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운송 인프라에 지속적으로 투자해주시는 **Cuomo** 주지사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아이슬립 타운의 **Angie Carpenter** 타운 슈퍼바이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맥아더 공항의 인프라를 업데이트하고 개선하여 우수한 고객 경험을 제공하고 노후된 지역과 부품을 현대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5천만 달러 이상의 자본 개선 프로젝트가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입니다. 이 주요 리노베이션 프로젝트는 현지 납세자에게 비용 없이 제공되며 공항과 지역사회에 많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롱아일랜드 지역경제개발협의체의 공동의장인 **Kevin Law** 롱아일랜드 협회(Long Island Association) 회장과 **Stuart Rabinowitz** 호프스트라 대학교(Hofstra University) 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맥아더 공항은 이 지역의 경제 건강에 매우 중요하며, 서비스와 편의 시설을 한 곳에서 통합함으로써 여행객들은 현대적이며 더 안전하고, 중앙 집중화되고, 쉽게 탐색할 수 있는 시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롱아일랜드를 이 지역을 방문하거나 사업의 위치를 찾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더욱 매력적으로 다가갈 지역으로 만들 또 다른 방법입니다."

오늘의 롱아일랜드 맥아더 공항의 착공은 지난 5년 동안 3억 1,600만 달러 이상의 전례 없는 직접적인 주 투자를 보완하여 뉴욕뉴저지항만청(Port Authority of New York and New Jersey)이 운영하는 시설을 제외한 주 전역에 걸쳐 지방 공항을 재구상합니다. 주의 투자에는 업스테이트 뉴욕의 공항들을 현대화하려는 2억 달러가 포함되며, 여기에는 [그레이트 로체스터 국제공항\(Greater Rochester International Airport\)](#), [시러큐스 헨콕 국제공항\(Syracuse Hancock International Airport\)](#), [엘미라 코닝 지역공항\(Elmira Corning Regional Airport\)](#), [플래츠버그 국제공항\(Plattsburgh International Airport\)](#), [이타카 톰킨스 국제공항\(Ithaca Tompkins International Airport\)](#), 및 [올버니 국제공항\(Albany International Airport\)](#)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최첨단 투자는 항공과 관련된 고임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 외에도 혁신, 지속 가능성 및 복원력을 디자인, 승객 편의 시설 및 고객 경험 향상에 통합했습니다. 이 기금은 John F. Kennedy 국제공항(John F. Kennedy International Airport)과 라과디아 공항(LaGuardia Airport)의 210억 달러 갱신 및 현대화에 추가됩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